

일·구직 안하고 '그냥 쉬는' 사람 1년새 24만명 늘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15.8% 차지...근로 1순위 '근무 여건' 청년층 10명 중 3명 "원하는 일자리 찾기 어려워"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사람이 1년 새 24만명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쉬었음' 청년(15-29세) 10명 중 3명은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못해 쉬고 있다고 답했다.

월급을 받는 일자리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1순위 고려사항은 '근무 여건'이었다.

통계청은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및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비경제활동 중 '쉬었음' 비중 15.8%...청년층·고령층서 늘어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8월 비경제활동인구는 1천62만1천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4만8천명 늘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만 15세 이상 생산 가능 연령 인구 중 취업자가 아니면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사람이다.

15세 이상 인구 중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은 35.6%로 작년과 같았다.

활동 상태별로 보면 가사(36.8%)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재학·수강 등(20.0%), 쉬었음(15.8%) 순이었다.

특히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는 1년 전보다 24만5천명 증가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차지하는 비중도 14.4%에서 15.8%로 높아졌다.

연령별로 보면 60대가 8만명 늘었고 70대와 20대도 각각 6만5천명, 5만4천명 증가했다.

'쉬었음'의 이유는 연령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청년층에서는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라는 응답이 30.8%로 가장 많았다. 비슷한 사유인 '일자리가 없어서'라는 응답도 9.9%로 조사됐다.

다음은 '다음 일 준비를 위해 쉬고 있음'(20.9%), '몸이 좋지 않아서'(16.0%) 순이었다.

청년층을 제외한 다른 연령대에서는 '몸이 좋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2순위로는 30-40·50대는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 60대 이상은 '퇴사 후 계속 쉬고 있음'이라는 응답이 꼽혔다.

향후 1년 이내 취업·창업에 희망하는 비경제활동 인구는 336만1천명으로 1년 전보다 6만7천명 줄었다.

취업·창업을 희망하는 주된 이유는 '생활비·용돈을 벌려고'(74.1%)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자기 계발·자아 발전을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사람이 1년 새 24만명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쉬었음' 청년(15-29세) 10명 중 3명은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못해 쉬고 있다고 답했다. 통계청은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및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

위해'(16.7%), '지식이나 기술 활용'(4.8%) 순이었다.

임금 근로 취업 희망자의 주요 고려사항으로는 '근무 여건(31.9%)'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수입·임금수준' 응답은 27.3%로 두번째였다.

반면 창업 희망자의 주요 고려사항은 '수입'(48.3%), '자신의 적성 및 전공'(25.9%), '자본금 규모 및 성장가능성'(16.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비임금근로자 6만명 감소...도소매업·농림어업 등에서 줄어

올해 8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등 비임금근로자는 65만7천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6만7천명 줄었다.

코로나19 시기였던 2020년 8월 16만1천명 감소한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 비중도 23.1%로 0.3%포인트(p) 하락해 8월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자영업자 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43만9천명으로 2만6천명 증가했다.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30만6천명으로 6만4천명 줄었다.

산업별 비임금근로자는 농림어업 149만7천명(22.5%), 도소매업 107만4천명(16.1%), 숙박·음식점업 85만2천명(12.8%) 순으로 많았다.

비임금근로자는 평균적으로 사업 또는 일자리를 15년 4개월간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동월 대비 4개월 증가한 수준이다.

고용주는 11개월, 자영업자는 2개월, 무급가족은 10개월 각각 증가했다.

평균 운영(소속) 기간은 20년 이상(30.1%), 10-20년 미만(20.8%), 5-10년 미만(19.3%) 순으로 높았다.

최근 1년 이내 사업을 시작한 자영업자 수는 38만1천명으로 1년 전보다 7만7천명 줄었다.

연합뉴스

광주신세계, 1인 가구 맞춤 상품 선봬

러닝머신·인덕션 등 다채

광주신세계는 6일 "분관 8층의 '툰투리'(TUNTURI), '린나이', '드롱기' 등에서 1인 가구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다양한 상품들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먼저 툰투리는 지난 1922년 핀란드에서 시작된 피트니스 전문 브랜드로 100년 넘는 역사와 기술력을 자랑한다.

유산소 운동부터 근력 운동에 필요한 다양한 제품들에 스칸디나비아 디자인을 입혀 오랫동안 고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툰투리 폴딩 트레이드밀 접이식 러닝머신 T20은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일반 러닝머신들과 달리 보관과 이동이 용이해 1인 고객들이 많이 찾는 모델이다.

광주신세계 툰투리는 홈트레이닝을 시작하는 고객들을 위해 정가 330만원의 툰투리 폴딩 트레이드밀 접이식 러닝머신 T20을 11월 한 달 동안 280만원에 할인 판매한다.

같은 층에서 만날 수 있는 '린나이'에

복지부는 '연금개혁 추진계획'의 3대 분야인 지속가능성 확보, 세대 형평 제고, 노후소득 강화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고 국민의 노후준비를 위한 국민연금의 필요성, 크레딧 등 청년을 위한 국민연금 제도, 기금 운용 성과 등도 함께 안내했다.

인태호 기자

복지부, 지역기자·전남대학생 대상 연금개혁 설명회

보건복지부가 지역 기자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금개혁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전 국민연금 광주지역 본부 주최로 연금개혁 설명회

자 간담회를 열고 추진 계획 등을 설명했다.

이어 오후에는 전남대학교를 찾아 '대학생 대상 연금개혁 설명회'를 진행했다.

연합뉴스

서는 1구 인택선이 1인 가구 고객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그중에서도 린나이 1구 인택선 RPI-Y11S 제품은 좁은 공간이나 야외 등 전기 코드만 꽂으면 공간의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드롱기' 매장에서는 미니멀한 디자인과 합리적인 가격의 뉴데이가 커피머신을 준비했다. 이 제품은 특히 1인 가구나 MZ세대 고객들로부터 관심이 높은 모델이다.

뉴데이가 커피머신은 원두 분쇄부터 커피 추출까지 반자동으로 지원하는 덕분에 집에서 간편하게 커피를 즐기고 싶어하는 고객들에게 인기가 많다.

연합뉴스

국내 100대 기업 임원 수 역대 최대

실적 저조 불구 7천400명대로 늘어...유니코씨저 조사

지난해 실적 저조에도 올해 국내 100대 기업 임원 숫자가 2010년 이후 가장 많은 7천400명대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글로벌 헤드헌팅 전문기업 유니코씨저가 상장사 매출액 기준 100대 기업 내 사내이사와 미등기임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임원 수는 작년보다 0.8%(59명) 증가한 7천404명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증가세는 실적과는 반대되는 행보로, 경영 체격과 체력 모두 1년 새 악화됐지만 임원 자리는 오히려 늘었다는 분석이다.

유니코씨저에 따르면 2022년 대비 작년 국내 100대 기업 매출 외형은 1천417조원에서 1천345조원으로 1.1% 수준으로 매출 당치가 작아졌고 영업이익은 58조원에서 30조원으로 48% 감소했다.

김혜양 유니코씨저 대표는 "지난해 경영 실적이 좋지 않을 때 오히려 임원 수를 늘려 경영 반전을 기대했지만, 예상했던 수준보다 경영 성과 등이 저조해 올해 연말과 내년 초 단행될 대기업 임원 수는 다소 줄어나갈 가능성이 농후해졌다"며 "특히 10년 전인 2014년 대비 2015년에 임원 수를 크게 줄였던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2014년 당시 100대 기업 임원 수는 7천212명이었으며 2015년에는 6천928명으로 200개 이상 임원 자리가 축소된 바 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1970년대 출생 임원 비중은 올해 처음 60%를 차지했다.

최근 1년 새 1973-1975년 출생자 임원은 250명 이상 증가한 반면, 1967년-1969년생은 180명 가까이 줄었다.

전체적으로 1960년생 임원 비중은 20%

19년 당시만 해도 74.1%나 차지했지만 68.7%(2020년), 62.9%(2021년), 51.7%(2022년), 44.1%(2023년), 36.6%(2024년)로 하향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1970년대생 임원 비중은 20.9%(2019년), 27.9%(2020년), 34.4%(2021년), 45.1%(2022년), 52.8%(2023년), 60%(2024년)로 우상향 곡선을 그려나가고 있어, 1960년대생과 1970년대생 임원 간 세대교체가 눈에 띄게 진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올해 조사에서 1980년 이후 출생자는 처음으로 2%를 넘어섰다. 내년 인사에서 MZ세대 임원은 2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를 기점으로 최고경영자(CEO)급 사내이사도 1960년대 후반 출생 임원이 1960년대 초반 출생자(89명·33.1%)보다 활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 구독QR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 상무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봉선지국 673-6836
- 백운지국 673-0123
- 두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 유동지국 222-8171
- 운암지국 529-3548
- 용봉지국 261-1503
- 신가지국 954-1420
- 양산지국 574-3745
- 하남지국 951-9954
- 운남지국 952-1687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명지국 371-9584
- 수완지국 955-0451
- 광산지국 944-0993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문포지사 061)278-0740
- 남문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나주지사 061)335-0005
- 광양지사 061)793-6800
- 구례지사 061)782-4696
- 담양지사 061)383-5566
- 곡성지사 061)362-5746
- 고흥지사 061)832-6290
- 보성지사 061)852-6644
- 화순지사 061)373-7795
- 장흥지사 061)863-6800
- 강진지사 061)432-8899
- 해남지사 061)535-5849
- 영암지사 061)473-7151
- 무안지사 061)453-3645
- 할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자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